

청소년 위한 '좋은 알바 사업장' 찾는다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해 좋은 알바 찾기 탐사단 2기 운영·좋은 알바사업장 인증 등 추진

전주시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일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환경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마련한 1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좋은 알바(아르바이트)를 늘려나가기 위한 취지에서다.

대표적으로,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0~20명을 선발해 '좋은 알바찾기 탐사단'을 운영키로 했다.

탐사단은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이 존중받는 좋은 알바사업장을 발굴하고 청소년 알바 실태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좋은 알바사업장'으로 인증해줄 예정이다.

시는 또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주지역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및 사업주 의식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알기 쉬운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지료를 제작하고, 시 홈페이지와 블로그, 버스광고 등을 활용해 이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불법 근로 등 각종 피해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관



서울에서 전주 비밀밥축제 홍보 전주시가 국내 제일의 관광명소인 남산 N서울타워에서 2017 전주비밀밥축제를 홍보한다. 사진은 비밀밥축제 포스터가 남산 N서울타워 내 부착된 모습.

련 조제를 제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운영하는 피해사례 상담 및 권리구제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좋은 알바 찾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총51개 사업장 중 좋은 알바 기준 13개 항목을 모두 만족하는 알바 사업장이 없어 청소년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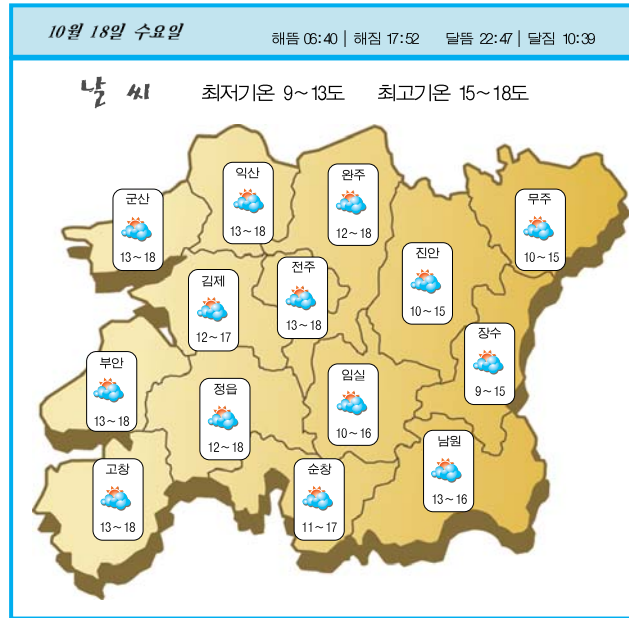
인권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실업을 증가로 많은 청소년들이 단시간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나 다수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향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갈 계획

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청소년 당사자의 눈높이에서 좋은 알바사업장을 발굴하고, 나아가 어린 청소년들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업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북대학교 양오봉 교수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차기회장 당선



전북대학교 양오봉 교수(공대 화학공학부)가 최근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차기회장에 당선됐다.

태양광발전학회는 태양전지의 원료, 전지 모듈, 시스템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련된 연구, 교육, 산학협력을 총괄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로 회원이 800명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5% 미만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이 학회와 양 교수의 차기 회장 선출에 대한 중요성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간 양 교수는 태양광 소재 등의 연구를 통하여 국내의 논문 120편 이상을 게재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평가 받고 있다.

양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발전 분야의 학문과 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학회장 임기는 2019년부터 시작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QS아시아대학평가 '국립대 2위'

국내 종합 13위, 아시아 92위로 Top100 달성... 국제화 지수 순위 대폭 상승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17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거점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3위에 올랐다.

전북대는 최근 수년 간 QS 등 대부분의 평가에서 거점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0위권 초반의 위상을 이어 갔고 아시아에서는 92위에 오르며 아시아 Top100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아시아 17개국 426개 대학을 대상으로 연구능력(55%), 교육수준(15%), 졸업생 평가(20%), 국제화(1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

전북대는 이번에 학계평판도와 교원당 논문수, 교환학생 비율 등에서 세

부 순위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대는 학계평가에서 국내 평가 전체 대학 중 13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교원 당 논문수도 지난해 24위에서 20위로 뛰었다. 이는 전북대가 이남호 총장 취임 이후 대학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한 대학의 네임밸류가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국내 22위에 머물렀던 아웃비운드 국제화에서 13위, 인비운드 국제화에서는 지난해 35위에서 19위로 순위가 대폭 상승하며 국제화 지수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역시 대학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대학에서 전북대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대는 △색깔 있는 모험인재 양성, △월드 클래스 학문 분야 육성 등을 4대 브랜드로 선정해 육성하면서 대학 전체의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총장은 "우리대학이 수년째 국립대 2위, 국내 종합대학 10위권 초반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은 대학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며 "4대 브랜드 육성을 통한 네임밸류 높이에 지속적으로 나설 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교육연수원 21일 연수한미당 개최

전북교육연수원(원장)이 21일 연수한미당을 열고 공통 강연과 선택 강연 등 다채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유초중고 교사와 교육전문직 5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 한미당에는 김정택 SBS 예술단장이 '감동과 열정의 하모니', 한비아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장이 '두잇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등 2개의 공통 강좌가 개설된다.

이와함께 참가자들이 선택해서 듣는 8개의 선택강좌도 제동된다. 김형철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당신이 다시 철학을 만나야 하는 이유', 최강욱 변호사의 '법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소영 소풍하는 그림연구소 대표의 '일상 속 영화 한 점' 등이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지역별 맞춤형 진로박람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맞춤형 진로박람회를 지역별 특색에 맞게 다양하게 개최한다.

전북교육청은 진로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적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진로박람회를 개최한다.

상반기에 실시한 전주교육자료전과 지난 9월 28일 장수교육박람회를 시작으로 19일 임실진로예술마당, 21일부터 진행되는 익산교육체험마당, 23일엔 고창마을교육박람회, 25일 남원춘향골진로축전, 28일 진안교육축전, 무주진로교육박람회, 28일 군산학생진로체험전, 내달 23일 김제

교육박람회, 30일 정읍 마을학교 체험전 등을 개최한다.

19일 임실군 군민화관을 중심으로 열리는 임실진로·예술마을마당은 문화·예술마당과 진로직업마을마당으로 나뉘어 열린다.

문화·예술 마을마당은 초중학교 중 참가 희망 동아리가 참가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인다.

진로직업마을마당은 6개 영역 50개 부스로 운영되며 공공기관 진로직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진로탐색 부스와 도내 대학학과 소개를 통한 진로탐색 및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학과탐색 부스 등으로 꾸러진다.

/정해은 기자

국립순창자연휴양림,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